

# 전북자치도, 전북여성 신년인사회 개최

### ‘여민유지(與民由之)’ 실천 다짐... 도정 도전·성장 여정에 여성 연대·정책 참여 의지 공유의 자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5일 전북 여성의 합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6 전북여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여민유지(與民由之)’: 도정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도정의 도전과 성장 과정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단체장, 여성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여성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의 신년 인사 나눔을 시작으로 여성계 대표 덕담, 팔레타 그룹의 축하공연, 하계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새해 분위기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가정과 일터, 사회 전반에서 중심 역할



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강당에서 전북 여성의 합찬 출발과 대도약을 다짐하는 '2026 전북여성 신년인사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년 떡케이크 컷팅을 하고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을 해 온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성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여성의 참여가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명숙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이 존중받는 사

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여성·가족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7

월 출범해 여성·가족 정책의 연구와 실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은 출범 3년 차를 맞는 올해, 분야별 전문가 협력체계 강화와 가족정책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01만호 기자

# ‘공공조달 선택권 시대 연다’... 도, ‘조달 자율화’ 시범 돌입

### 나라장터 구매 또는 수요기관 자체 입찰·수의계약 방식 적용

### 컴퓨터·가전 등 전기·전자제품 등 118개 품목 자율구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조달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한다.

도는 조달청이 추진하는 ‘단기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컴퓨터, 프린터,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조달청 종합쇼핑몰인 나라장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했다.

조달청이 미리 가격과 조건을 정해 계약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방식은 절차가 간소하고 행

정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가격 협상의 여지가 없고 제품 선택의 폭이 좁으며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물품 구매 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처럼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 계약 물품을 구매하거나, 기관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자체 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자체 조달을 선택할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정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시중 거래가 활발하고

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냉난방기, 프린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이며,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제도 개선으로 중앙조달 중심 체계에서 참여 기회가 제한됐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문호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구매가 가능해져 예산 절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시범운영 기간에도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약 5천 개기업의 98% 이상으로 유지해 공정성과 상생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북도의 최근 5년 평균 중소기업 구

매 비율은 84.7%, 여성기업 13.3%, 장애인기업 2.7%로 법정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아울러 1년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자율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차지행정국장은 “이번 공공조달 자율화는 중앙 중심의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라며 “도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절감된 예산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재투자해 지역경제의 실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1만호 기자

### 전북소방, 겨울철 주유소

### 화재예방 특별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주유소 관계인의 화기사용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화재·폭발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20일까지 ‘겨울철 주유소 화재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도내 주유취급소 50개소 중 약 15%에 해당하는 88개소를 선정해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태, 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무허가 위험물 취급이나 시설 설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준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한다.

소방본부는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자의 사고 예방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도민 안전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주유소 내 금연, 주유 중 엔진 정지, 겨울철 난방기기 안전관리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해 현장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상용차 자율주행·지능형 농기계·해양 모빌리티 등 3대 핵심 분야 실증 거점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첨단 동물·식품 바이오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새만금 지인트 스마트 팜과 국가농업 AX 플랫폼 지원

# 도, 시·군과 AI 방역 긴급 점검... 동절기 확산 차단 ‘총력’

###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2건 발생...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군 방역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하강과 철새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도내 유입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2건이 발생했

으며, 전날(1월 4일) 익산시 육용종계 농가에서 H5형 환원이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철새 이동과 기존 하강이 겹치는 현 시점은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고위험 시기로, 방역 관리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가금농가 예방 강화, 거점 소독시설 운영 점검,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조치를 중심으로 현장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심 증상 발

생 시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초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철저히 유지할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철새 이동과 기존 하강이 겹치는 시기에는 추가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며, “각 시·군에서는 예방·소독·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 농장은 내가 지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자율 방역과 차단방역 5대 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 → 1면에 이어... “새해, 도전·성과 도민의 삶으로 완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SOC와 물류전략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신항만 건설,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과 함께 새만금 메가샌드바스를 활용한 전주기 실증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상용차 자율주행·지능형 농기계·해양 모빌리티 등 3대 핵심 분야 실증 거점 조성,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첨단 동물·식품 바이오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새만금 지인트 스마트 팜과 국가농업 AX 플랫폼 지원

센터 구축,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통합 돌봄망 확충 및 신노년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은빛일터’ 조성 △기업이 모이는 전북 지갑이 두꺼워지는 도민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전북, 일상의 예술이 되는 도민 △동생사냥 거점없이 더 빠르게! 사물인터넷, 쾌속 교통시대 개막 △주력 산업의 폭넓은 진화과 에너지 대전환 △미래를 쓰는 농생명, 희망을 거두는 청년농 △드문드문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출산율 1.0 시대 회복 등 파루로

와닿는 확실한 행복과 낙낙한 여유로 도민의 삶을 가득 채우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6년은 이 기회를 이어갈 것인지를, 놓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북 곳곳에 닿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2026년은 이 기회를 이어갈 것인지를, 놓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북 곳곳에 닿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2026년은 이 기회를 이어갈 것인지를, 놓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북 곳곳에 닿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2026년은 이 기회를 이어갈 것인지를, 놓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전북 곳곳에 닿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01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AI 중심 직업훈련 확대

### 국비 44억원 확보... 산업구조 변화 대응 훈련 3년 연속 확대

### AI·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1300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성장진흥원 산하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은 3년 연속 규모가 확대됐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한 해 동안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훈련은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이룬 중심 교육이 아닌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로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AI 전환 대응 과정’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전북은 멀티미디어, 디지털디자인, 출판 등 3개 공룡 직종을 중심으로 AI

융합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에너지·농생명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3월 훈련기관 1차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누리집(www.jh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63-711-2166)으로 하면 된다.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AI 전환이 산업 현장의 현실이 된 만큼, 훈련 역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특화훈련이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도민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산대특 운영기관 선정은 전북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한 선제적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01만호 기자

# 중기부, 성장 단계별 창업패키지 모집

### 초기 창업 패키지 100개사·창업 도약 패키지 75개사 선발

### 사업화 자금·멘토링·투자유치 등 제공... 27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창업패키지(답테코 특화형)’ 사업을 1월 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답테코 특화형) 100개사, 창업도약패키지(답테코 특화형) 75개사를 새로 선발한다.

창업패키지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초기, 도약으로 구분해 사업화 자금 지원과 멘토링, 투자유치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6년부터는 답테코 특화형, 일반형, 투자연계형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창업기업의 산업 특성과 투자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답테코 특화형은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고난이도 기술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경우 지역 발전 수준에 따라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지역 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농어촌 인구조급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자부담 10%로 낮춘다.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장 단계별로 세밀하게 설계된 지원을 통해 답테코를 포함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두텁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 새만금사업 성공 추진 다짐... 새만금청 신년 시무식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026년 시무식을 5일 오전에 개최하고, 새만금청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 새만금사업의 관성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적토파처럼 합차게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의 방향과 구상은 온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내외 조건 변화가 불거지는 시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01만호 기자



시무식 이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명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01만호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새해 맞아 임신평국원 참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 임직원들은 2026년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5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경균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실·처장 등 총 15명이 참석한 이번 참배에서는 헌화·분향·묵념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나 사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



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처럼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여가겠다”고 다짐했다. /01만호 기자